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계획하신 좋은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허락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고, 가족들이 건강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 오늘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새번역으로 사용합니다. 찬송가 표지 안쪽을 보시며 익숙할 때까지는 읽으셔도 됩니다.
- 공동체 직원 시무식이 4일(월)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지난 주일에 2021년 집사를 임명하고 제직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강춘자	공재규	구경본	권수현	권혁수	김기환	김미섭	김미임	김병우	김성기
김순정	김영동	김영화	김영희(p)	김은정	김일구	김재욱	김종훈	김중필	김지현
김혜경	나송주	류기석	박경희	박동인	박민정	박산하	박영선	박태규	박현주
배덕호	백성복	서병욱	석용범	신기성	신수호	양기모	엄원식	오영욱	옥대철
우창숙	윤경옥	윤호중	이명호	이승호	이어람	이어직	이운순	이윤희	이재신
이종욱	이종하	이창운	이충환	이현숙	임명숙	임상희	임은숙	임진숙	장미라
장미숙	장지영	전경희	전선희	전향욱	정낙귀	정미란	정성미	정승희	정영욱
정혜라	정혜욱	정혜정	조영희	조장희	조현경	진용용	진정행	차현주	채복희
채영대	채영학	최상득	최신혜	최연우	최창수	하경임	한대훈	한미선	한태수
한혜정	허철영	권재만	노미현	이근자	이어진	정다운	정재훈	조소연	장영미
차태욱	최기찬	해 은							총 103명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중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호

2020년 1월 3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며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책에 기록이 될 만한 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랑방공동체의 역사에도 기록되고 두고두고 회자 되는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Covid-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남다르게 기억할 터인데, 기독교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신앙 생활과 교회생활은 모이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세계의 모든 교회가 고민하게 되는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시간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최근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의 규모, 실제 교회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서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모습들에서 소비주의의 영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인식,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의식, 하나 됨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약화 된 시기입니다. 모임을 할 수 있을 때조차도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 있는 시대에, 모임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겹치면서 정체성의 약화는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장(場)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그동안에는 그리 애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스스로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더 이상 힘을 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에서 차등이 훨씬 크도록 심화시킵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한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한 개인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각 사람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와 선택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2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신앙으로 병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회와 집회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4세기 이전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탄압에 의해서 공개적인 모임이나 전도와 증거가 불가능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이 시기 교부들의 문헌 속에는 전도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전도가 불가능했고,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의 '파라볼라노이(παραβόλανοι)'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감염된 사람들을 거리로 내다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쫓아내는 경우까지 비밀비재 했습니다. 도시에 시체들이 쌓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서서 시체를 치우고, 버려진 환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보살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교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파라볼라노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사랑의 실천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중요성과 개인의 신앙이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은 일종의 시금석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진위를 가려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한주간 말씀

“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왔습니다.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제목 : 믿음에 든든히 서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인도 : 정재훈 전도사

찬송 : 105 295 220 405

###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3절a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3절b~12절 불법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13절~17절 우리에게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 내용의 의미(Why)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흔들어놓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자신들로부터 배운 전통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일상에서도 달라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에 든든히 서는 방법뿐입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 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듣는 것을 분별하자.
- ②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자.
- ③ 배우고 전해 받은 가르침 위에 믿음을 든든히 세우자.

성서일기

## 새로움을 비는 기도

주여,

바른 마음을 먹고 선한 생각을 품게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사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지혜가 날로 깊어져 역사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사랑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소서.

거친 풍파에 좌절을 겪지 않게 하시며

사막을 홀로 걸어도 막막하지 않을

소망을 주시고

길이 멀다고 마음까지 먼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진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로 사람을 대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생명으로 세상을 구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한결같은 성실로 믿음의 품성을 길러

이 혼탁한 인간세(人間世)에서

새로운 희망을 뿜어내게 하소서.

[사감을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중, 한종호 목사.

지체들의 삶



### 2020년을 마무리하는 멋쟁이들과 졸업생

2020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하려니 느낌이 많이 이상하다. 얼떨결에 이번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2020년은 많은 의미를 가졌던 해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속되면서 헛다운되는 일이 많았다. 그만큼 새로웠던 해였다.

올해가 새롭게 느꼈던 이유는 과거 학교생활과는 다르게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년끼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확연히 학년끼리의 관계가 끈끈해졌다. 하지만 전보다 선후배의 관계는 많이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활동보다는 집에서의 활동이 많아져 편안했다. 어떻게 보면 허전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 해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서는 오히려 올해가 쉽을 통해 안정을 많이 되찾은 해였다.

아쉬웠던 점은 외부활동이 많이 없어지는 관계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이 줄고, 사람과 만남이 많이 없어서 소통이 줄어들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 우리에게만 일상이었던 하루가 소중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다. 학교에서 매달 가던 여행이 당연한 일이 아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과 간식을 간편하고 사람과 접촉이 없는 간식으로 해야 하다 보니 예전의 조리된 간식 ex) 떡볶이 등을 먹을 수 없는 것도 방 생활에 있어서 여러 불편함을 갖다 주었는데 예전에는 막연히 당연했던 생활에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 그래도 이번 한 해 멋쟁이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생활한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하다.

내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해 경험을 바탕으로 잘 배워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자신의 학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뀔 텐데 잘 적응하면 좋겠다. 1학년은 이제 2학년이 되고... 5학년은 6학년이 되고... 6학년은 이제 또 다른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 힘내서 생활하기를 바라며, 2020년 마무리하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예~~~~~

<2학년 진시우 멋쟁이>

안녕하세요! 졸업생 한민아입니다. 졸업한 뒤 처음으로 이렇게 코이노니아에 실을 글을 부탁받아 2020년을 돌아보는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졸업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졸업생의 신분으로 글을 쓰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ㅎㅎ 저에게 2020년은 참 특별하고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20살이 되어서 맘껏 놀러다니고 멋진 대학생이 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나름의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멋진 대학 생활을 기대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과 특성상 실습수업의 비중이 높아 코로나가 조금은 주춤했던 5월부터 몇몇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해서 조금은 본격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못하고 제한되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옹기종기 모여 조용히 놀았던 시간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놀기는 힘드니 학교 기숙사에 몇 명의 친구들과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줌으로 함께 공부하기도 하며 나름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없었을 것 같아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보드게임을 하면서 수업 시간이 달라 몰랐던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마스크 끼고!)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정말 꿈같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악몽처럼 깨어나면 다 꿈이고 2020년이 새로 시작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나중에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만나지 않아도 만난 것처럼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마냥 닳지 못해도 언제나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길 기도하고 바랄게요!

<한민아 졸업생>

## “함께”라는 지극한 기쁨

이번 성탄전야 묵상길부터 온라인으로 드러졌던 송구영신 예배까지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함께”라는 단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은 zoom이라는 화상 공간에서 비대면 회의를 길게 가지면서 모든 준비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분담을 하여 말 그대로 일사분란하게 척척 맡은 부분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다른 식구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 각 부분을 감당해주셨습니다.

일일이 일의 전말을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성탄 전야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밀랍 초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찬 키트와 송구 영신예배 꾸러미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분들의 손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박스조립에서부터 스티커부착까지. 또 내용물들 중 대부분은 손수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함께하는 협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달하는 과정은 어땠구요. 포천에서 군포, 광명, 인천까지... 심지어 공주까지 내려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들 고생스럽지 않냐고. 힘들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힘든 것을 넘어서고 잊게 할 만큼 사랑방 지체들을 만난다는 것이 기뻐고, 어떻게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함께 할 때의 위력을 맛보았습니다. 지체의 하나됨과 지극한 행복도 느꼈습니다. 사랑방공동체의 힘은 역쉬 함께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은 많은 이유들로 인해 함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서로가 소중하고 함께함이 갈급했습니다. 새로운 2021년은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지극한 기쁨을 우리에게 더욱 많이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방 식구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베드로전서 3:18-20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중국의 폐쇄성과 위험>

중국은 코로나-19가 완치되었다 발표하였고 감염자 0명의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모습을 공개했던 사람들은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 중국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2) 중국과 세계가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 잘 협력하도록

###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행복교회>

1) 복음의 참된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누림이 있게 하시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행복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안과, 남북한 관계 및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안정되도록,

3) 조규남 원로목사님과 더불어 환우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해를 맞이하는 공동체를 위해>

1) 공동체의 정관작업과 구성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또한 교회의 제직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고 잘 가꾸어져 가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한 주간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이 서로 만나는 시점을 지나며,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러져야 하는 한계를 잘 알기에, 기존에 행하던 손씻기와 허리띠를 매는 순서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일체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배달하였습니다. 교역자들과 생활공동체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까운 무림리에서 저 멀리 공주까지 배달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서로 문자로 주고받으며 돌아오는 길은 수고스럽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송구영신 예배는 한 몸,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사랑방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재훈 전도사>